



##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SOPEMI 2009

Summary in Korean

### 국제이주전망: 2009 년도 SOPEMI

국어 개요

- 지난 20 년 동안 OECD 국가로의 이주가 크게 늘었으며 최근 해에는 노동 이주가 현저히 늘었다.
- 본 고에서는 먼저 경제 위기와 경제 위기가 국제 이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어 최근 경제 위기가 이주 흐름 및 정책에 끼친 영향을 나타내면서 중장기 영향에 대한 전망을 분석한다.
- 그 다음, 고급 인력이나 덜 숙련된 인력의 노동이주 관리 문제를 돌아보면서 국가들이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 충족을 위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떠한 방식이 불법 이주를 공식 경로를 통한 이주로 전환시키는 최선의 길인지 검토한다.
- 각각의 표와 그래프는 StatLink 를 통해 해당 자료를 xls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2009. 10 월부터는 [www.oecd.org/els/migrations/pmi](http://www.oecd.org/els/migrations/pmi) 에서 각국 보고서, 동향 분석, 통계 부록 등을 받아볼 수 있다.

## 서론

많은 OECD 국가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청년층 감소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에 따라 향후 몇십년 간 노동공급 부족 현상이 예상되면서 이의 해결책으로 노동이주에 주목하고 있다. 2015 년쯤에는 OECD 에서 퇴직하는 노동력이 신규 진입 노동력보다 많을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수년 간 지속될 것이다. 국제이주뿐 아니라 기술, 아웃소싱, 국내 노동력의 공급 동원 등도 인력난의 해결책이 되지만 국제이주는 일부 직종과 일부 국가에 드러난 노동력 수요를 충족하는 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경제위기는 상황을 크게 변화시켰고 노동시장의 압력을 진정시켰다. 최근 경기 침체로 고용인의 근로자 수요 감소와 함께 이민자를 끌어들이 일자리 기회가 줄고 또 정부 스스로가 정책을 바꿔 노동이민자 수를 낮추거나 일부 직종을 인력난 직종 목록에서 삭제하면서 이민자 입국을 제한한 만큼 순 이민 유입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현 위기도 예외는 아니어서 OECD 의 노동시장 여건에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노동 이민의 흐름이 위축되고 최근 해에 이민자들이 이뤄낸 노동시장의 발전도 거의 후퇴되었다.

실업률은 가장 먼저 경제 위기를 맞은 국가에서 큰 증가를 이루고 이민자 고용률은 절대적, 상대적으로 본토 태생 근로자보다 줄어든 수준이다. 이민노동자는 경제 침체에 본토 태생 인구보다 더 큰 타격을 받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히 이민자들이 경기에 민감한 경제분야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고, 고용계약 조건이 비교적 불안정한 상태며 선별적 채용과 해고 상대대상으로 쉽게 고려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침체에 입국한 이민자와 일자리를 잃은 이민자는 안정적인 조건으로 취업 및 재취업을 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민자 고용률이 본토 인구보다 뒤쳐진 수준이 되었다.

노동시장에 나타난 이민자들의 성과 저하가 앞으로 경기회복이 수반할 이주 축진의 가능성을 저당잡지 않도록 정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인종 통합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반차별 조치는 강화하며 이민자들 또한 실업자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혜택을 동등히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경기침체에 빠졌다고 전반적인 인력이주 관리에 대한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인력난은 지속적인 문제이고 경기가 회복되면 이주 증가 현상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정부가 포괄적인 장기 안목으로 다루어야만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이민 관리, 불법 이민 감소 및 장기 맥락에서의 이민자와 자녀들의 사회통합을 장려하는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십년 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숙련 이민자의 채용과 체류를 촉진하는 고숙련 이주노동정책이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직종과 경제부문에서 저숙련 이민자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저숙련 이민자를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정책적 선택이며 이에 는 이민자 도착국 입장에서의 비용편익 분석 평가가 필요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가 저숙련 일자리 대상의 이주 경로 개방을 고려하는 실정이다. 요컨대, 저숙련직에 대한 수요가 높는데 합법 입국 가능성이 한정돼 있으면 불법 이민을 조장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이러한 정책을 강요하는 것도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숙련 일자리에 이민 인력을 기꺼이 고려하는 국가들은 조직적인 임시 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저숙련 이민 관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임시 이주 노동은 노동 수요가 정말로 임시적일 경우에만 경제적 의미가 있다. 노동 수요가 영구적인데 임시 이주 노동을 지속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비용도 많이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민자와 고용인 입장에서는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롭다.

OECD 국가들은 모든 숙련수준에 대한 수요에 대처 가능한 수요 중심의 노동이주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에는 고용인과 이민노동자들이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유인책, 국내 인력은 물론 이민 인력을 위한 보호 조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 고용인과 불법 이주자 사이에 널리 활용되는 비공식적인 면대면 방식이 합법적 채용 방식과 같이 경쟁할 위험이 있다면 정식 채용 방식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이민 프로그램에는 다음의 사항이 필수다.

- 노동 시장 수요 확인;
- 저숙련 외국인력을 위한 공식 채용 경로 수립;
- 충분한 비자 발급 및 신속한 처리;
- 주거지 및 이민자 지위를 확인하는 효율적인 방법 제공;
- 효과적인 국경 통제 및 근무처 단속 절차 시행

규칙을 어기는 고용인들에게 유효한 처벌 및 단속 방식을 적용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으면 불법 이주자 채용에 덜 관대해질 것이다..

최근 몇십년 간 고급인력 이주에 변화가 일면서 이전에 거의 OECD 국에서 이뤄졌던 인력 이동은 점점 자격증을 갖춘

제 3 세계 국가 출신이 이민인력의 주를 이루는 가운데 고용인들이 이들의 직장 경력을 빈번히 헐값에 사들이는 추세가 되었다. 따라서 이민노동자가 경력과 자격증 수익에 대한 갖는 기대가 좌절됨으로써 욕구 불만과 인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민자들이 보장된 일자리가 없거나 사전에 도착국의 노동 시장 전망을 정확히 판단하지 않은 상태로 도착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결과를 낳는 주원인이다.

숙련 이민인력의 기대와 노동시장에서 이뤄지는 성과 간의 비대칭 문제를 다루는 보다 현명한 방법은 이민인력의 입국에 앞서 적절한 사전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다음의 사항을 뜻한다.

- 사전에 일자리 제안을 받은 이민자 우대
- 입국 허가 이전에 자격증 및 언어능력 평가
- 외국인 자격증 및 경력과 관련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평가 및 승인 절차를 시행

국내에서 학업을 마친 국제학생을 채용하는 것은 수요와 인정이 보장된 자격증을 갖춘 이민자를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하는 방법의 하나다. 국제학생 입학울 확대함으로써 국내 자격증을 갖추면서 채용 가능한 이민인력 풀을 새로이 구성할 수 있다. 아울러 이민자 수용국이나 이민자 스스로가 숙련 비용을 일부 부담하므로 외국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것보다 이민자 출신국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덜하다.

OECD 국가들은 이민자와 특히 자녀들의 사회통합에 더 크게 기여해야 한다. 노동이민자들이 도착하자마자 취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고용가능성은 보장되지 못하며 저학력 인력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불리한 경제 여건에서 이민자들이 더 큰 타격을 받는 만큼 현재 경기침체에 이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언어 학습, 고용인 접근 및 고용 기회를 저해하는 이민 사회의 지리적,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기에 이민자 자녀들의 현지언어 노출과 유아교육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주를 잘 관리하면 수용국에 이로울 수 있고 출신국도 적잖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본국 송금은 받는 이들의 복지를 크게 향상시킨다. 이 중의 상당 부분이 건강 및 교육 투자에 활용되는 만큼 출신국의 인적 자본 증대와 잠재성장을 촉진한다. 이민자의 출신국으로의 귀국은 지식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기대효과는 전체적 시야에서 보아야 한다. 노동이주 규모는 대부분의 출신국들의 인구에 비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국가는 이민자 비중이 큰 국가들일 것이다.

OECD 국가는 이산민의 접촉을 촉진하고 연금 기여금의 통산제도 결여 및 실패 등과 같이 이들의 귀국 의욕을 저하하는 요인을 제거하며 아울러 임시 고숙련직으로의 인구

이동을 막는 장벽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OECD 2009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붙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http://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mailto: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http://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